

# 부모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Gender differences and influential factors on economic resourc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선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Koh, Sun-Ka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income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 series of analyses of data from the 2013 Korean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on the economic resourc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ere conducted. One of the major findings was that in a comparison between male-headed households and female-headed households, the levels of assets and income in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lower than those in male-headed households. The labor income in male households was almost two times higher than that in female households. Housing conditions with respect to male households were more secure and better than those in female household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s of economic resources in single-parent households varied in terms of the type of economic resources. Gender, employment status, family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inco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ith respect to the levels of assets in single-parent households.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as influenced by gender,

\* 본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ousing conditions was significant.

Key Words : 한부모가계(single-parent household), 소득(income), 자산(assets),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s)

## I. 서론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계<sup>1)</sup>는 꾸준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부모가계의 규모를 추정할 때 빈번하게 인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와 인구총조사 자료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계의 비율은 2010년 9.2%, 2015년 9.4%로 추계되었고, 2035년에는 한부모가계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총조사 각 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계의 비율은 1995년에 5.7%에서 2010년에 6.8%로 나타나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계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나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계의 규모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한부모가계의 특성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년간 한부모가계 구성 이유의 대부분이 사별에서 이혼으로 바뀌었고, 부자가구는 빠르게 늘어났다. 장래가구추계(2012)에 의하면 부자가구는 2010년에 전체가구의 2.0%, 2015년 2.2%, 2035년에 2.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모자가구는 2010년에서 2035년까지 7.2%에서 7.3%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자가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부자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부모가계의 변화 요인으로 가구주의 연령의 변화가 예측된다. 한부모 가구주의 연령은 2010년 40대가 전체의 35.6%로 가장 많았고, 2035년에 28%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60대 이상의 한부모 가구주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60대는 연평균 약 1만 가구가 증할 것으로 보여 한부모가계의 증가에 60대 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부모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계에 관한 연구들은 저소득 여성한부모 가계에 집중되어왔고, 특히 경제적 취약성에 관심을 두었다(강기정·박수선, 2013; 곽민주·이희숙, 2003; 이성립, 2004; 진미정·김은정, 2004). 여성한부모 가계는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한부모 가계의 주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 등은 여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 시장노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양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일을 택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손서희,

1)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은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단위로 한부모가계를 정의하여 한부모가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013). 취업의 어려움과 낮은 근로소득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악화시킨다(이성림, 2004; 배다영·진미정, 2011).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한부모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한부모들도 직업의 유지와 자녀양육의 과중한 역할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노정자·강기정, 2012).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문은영, 2011)에 의하면 한부모가계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여성한부모 가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2순위로 꼽았고, 남성한부모 가계는 1순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2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남성한부모는 여성한부모와 비교하여 취업률이 높고, 근로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적지만, 한부모가계가 되는 것 자체가 기존의 경제자원 수준 유지를 어렵게 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사별이나 이혼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소득감소, 주거변화, 자산감소 등)을 동반하고, 한부모가계는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한부모도 여성한부모와 같이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부딪히며, 따라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여성한부모는 자녀양육과 시장노동을 병행하기 어려울 때, 자녀양육에 더 무게를 두는 결정을 하는 반면(손서희, 2013), 남성한부모는 시장노동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은 남성한부모 가계가 더 나은 편이다. 남성한부모가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장 힘든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의 이면에는 소득창출을 위한 시장노동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계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합리적인 경제자원 관리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에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합리적인 경제자

원 관리는 건강한 가정의 토대이다(조희금 외, 2010). 한부모가계도 다르지 않다. 경제자원은 한부모가계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부모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전체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손진분·박미려, 2009), 한부모가계가 빈곤가계이고 주거가 불안정하여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서지원, 201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가계의 경제자원이 자녀양육과 성장발달에 영향을 준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한부모가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박정윤·원아름, 2014), 자산 보유 정도가 자녀의 교육수준과 대학진학에 중요한 요인이다(Han, Huang & Garfinkel, 2003). 이러한 이유로 한부모가계 연구에서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계 경제자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대부분 경제적 취약성과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진옥, 2010; 이성림, 2004).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취약성 극복과 빈곤 탈피를 위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한 사회체계의 변화는 한부모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가정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 효과적인 한부모가계의 복지증진이 실현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계를 위한 소득지원과 같은 경제자원 지원은 국가의 정책영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자원에 대한 관리는 사적인 영역으로 개별가정의 능력에 맡겨왔다. 다른 유형의 가계와 비교하여 인적자원과 경제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계에는 제한된 경제자원의 합리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관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한부모가계의 특성과 다양성을 다각도에서 세부적으로 접근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곽민주·이희숙, 2003; 이성립, 2004; 이윤금·양세정, 1999)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수준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주장하였고,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한부모의 특성과 가정생활의 특성이 가계의 경제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제자원별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발표된 가구주의 성별, 세대구성과 한부모가계 경제자원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배다영·진미정, 2011),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자산과 부채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고선강, 2014) 등은 우리사회 한부모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부모가계 또는 한부모가계를 대상으로 경제자원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실제 한부모가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계의 특성(예, 여성가구주 가계)으로 한부모가계를 추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한 기존의 2차 데이터들은 한부모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여 가족의 다른 특성들을 활용하여 한부모가계 여부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와 같이 정책적 요구가 비교적 분명한 세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부모가계의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들이 대다수이고, 자산을 다룬 연구들도 자산의 총액이나 순자산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소득의

세부 항목들의 보유율과 보유수준을 비교하고, 각각의 경제자원 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관련 정책 방향 설정과 적절한 경제자원관리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선행연구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대한 연구들 중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14)에 의하면 한부모가계의 평균 가구소득은 2,838만원으로 표본 전체의 가구소득 4,676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른 유형의 가구들과 비교했을 때, 노인가구와 조손가구 보다는 높고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보다는 낮았다. 전체 가구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표본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약 64.7%,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4.5%,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1.6%였다. 한부모가계의 가구소득에 대한 소득원천별 비율을 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54.6%,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8.3%,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6.2%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의 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손가구 42.9%, 노인가구 12.4%, 장애인가구 52.4%로 한부모가구보다 낮았다. 반면 다문화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1%로 한부모가구보다 높았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조손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가

각각 27.5%, 32.8%, 13.7%로 한부모가구 보다 높았고, 다문화가구는 3.9%로 한부모가구보다 낮았다. 한부모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다문화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유형 보다 높았고,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은 다른 가구유형 보다 낮았다. 가구소득을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이 연간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표본의 12.8%인데, 한부모가구는 9.4%로 나타났다. 6개로 소득구간을 나누었을 때, 한부모가구의 57.6%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극빈가구의 비율은 전체 표본과 다른 유형의 가구들 보다 낮지만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가구들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연우(2012)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의 수준이 한국평균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계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989,000원으로 한국평균 3,631,000원의 약 27.3%의 소득수준을 나타냈다. 한부모가계의 약 59%가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계로 나타나 한부모가계의 경제상태가 한국평균보다 열악하다고 하였다. 주택소유 유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평균 자기집 소유 비율이 60.3%인 것과 비교하여 한부모가계의 자기집 소유 비율은 7.2%로 매우 낮았고, 월세(44.8%), 장기임대(12.6%), 부모님이나 친척집 무상거주(1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계의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사표본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저소득 한부모를 과대표집(전체의 82.8%)했기 때문에 전체 한부모가계에 일반화되기는 어려우나, 저소득 한부모가계의 경제상태가 일반적인 한국평균보다 많이 열악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한부모가계의 경제상

황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광민주·이희숙(2003), 이성림(2004)은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여성한부모 가계의 재정상태가 양부모가계와 비교하여 좋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광민주·이희숙(2003)은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 자산, 재무비율을 비교하였다. 가구원 1인당 소득, 연간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여성한부모 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냈다. 자산상태를 비교한 결과 총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 모두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양부모가계의 보유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재무비율에서도 소득대비 소비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의 비율이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도 여성한부모 가계가 양부모가계 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실물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여성한부모 가계의 61.6%, 양부모가계의 49.9%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순자산 대비 투자자산의 비율,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연간총저축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준에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이 양부모가계 보다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여성한부모 가계가 가계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 형성의 여력이 적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성림(2004)의 연구도 한부모가계 중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취업과 경제상태에 주목하였고, 이들을 양부모가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0-40대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가계와 양부모가계가 분석대상이다.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맞벌이 양부모가계 소득의 45%, 홀벌이 양부모가계 소득의 54%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부모가계의 평균 가구원 수가 양부모가계보다 적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한 환산소득을 비교하였는데,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환산소득도 맞벌이 양부모가계의 약 57%로 그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도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배로 맞벌이 양부모가계의 2.2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맞벌이 양부모가계의 빈곤율이 11%, 홀벌이 양부모가계의 빈곤율이 15%인 것과 비교하여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빈곤율은 48%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성가장 한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계의 경제상태의 차이가 컸는데, 취업한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90%를 차지하였고, 사회보험 등의 이전소득이 7.3%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가장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이전소득 비율이 13.7%, 기타소득이 28%로 나타나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의 의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근로소득 부족분은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채워져서 양부모가계와 비교하여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이 연구는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부족과 소득구성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연구이나 전체 한부모가계가 아닌 여성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전체 한부모가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연구대상을 여성한부모 가계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를 모두 포함한 고선강(2014)의 연구도 한부모가계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계의 자산과 부채 보유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한부모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 보유액도 각 세부항목별로 양부모가계가 한부모가계보다 높은 보유액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도 양부모가계가 한부모가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나, 한부모가계의 세부 경제자원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 2.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부모가계의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자원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요인이 한부모의 성별이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남성한부모가계의 경제상태가 여성한부모가계 보다 좋지만, 특정부분에서는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차이가 없거나 남성한부모가 더 열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배다영·진미정(2011)의 연구는 한부모의 성별과 세대구성에 따른 경제상태를 비교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006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성한부모가계와 여성한부모가계의 경제상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각각의 세대구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단독가구를 구성한 경우 보다 3세대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 가구소득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 원천별 차이는 민간 및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단독가구일 때 더 높았다. 고선강(2014)은 남성가구주 한부모가계와 여성가구주 한부모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을 비교하였는데, 자산 보유율은 적립식 저축, 저축성 보험, 예치식 펀드에서 여성가구주 가계의 보유율이 더 높았으며, 자동차 보유율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더 높았다. 보유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높았고, 적립식 저축과 전월세 보증금 액수는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더 높았다. 가구소득도 남성가구주 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변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성에 따라 총자산 수준이 달라지며, 여성가구주 가계가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자산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 하였다.

이연주·김승권(2011)은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특히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2%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계를 추출하였고, 가구주가 한부모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수준과 직업, 고용형태를 대리변수로 하여 경제자원 수준을 추정하였다. 부모의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남성한부모 보다 여성한부모가 더 높았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한부모의 취업비율이 여성한부모 보다 높았으나, 취업한 한부모들을 비교했을 때 남성한부모들은 노동직의 비율이 높고 사무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 직업지위는 여성한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의 경우 남성한부모의 직업지위가 낮으므로 가계의 경제수준도 여성한부모와 비교하여 낮을 것이라 하였다. 반면 문은영(2011)은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취업률과 근로소득 의존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한부모의 판매서비스직 종사비율이 높아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상태가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위해 임의표집된 대상가족 800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한부모가 가구주인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한부모의 91.5%가 취업상태였고,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취업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여성한부모의 56%는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였고, 다음으로 사무행정직이 34.9%로 많았다. 남성한부모는 사무행정직 종사자가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20.4%로 나타났다. 생활비 조달방법으

로 전체 표본의 91.7%가 근로소득이라 답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의 성별은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나, 성별의 효과의 방향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한부모가계에 대한 정의, 표집방법, 분석한 경제자원의 차이로 인해 성별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대한 한부모의 성별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도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과 관련이 있다. Ozawa와 Lee(2006)는 한부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순자산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수준이 높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순자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였다.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서 시간제 근로자, 무직자의 순자산 규모가 더 크다고 하여 고용형태도 자산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한부모가계에 관한 연구들도 교육수준과 고용상태는 가계의 자산과 소득수준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다. 고선강(2014)은 한부모의 교육수준과 고용상태는 한부모가계의 총자산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 하였는데, 한부모의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와 비교하여 총자산 수준이 높았고, 한부모의 고용상태가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과 비교하여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총자산 수준이 높았다. 배다영·진미정(2011)도 여성가장 한부모가계의 취업여부가 가계소득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한 여성가장 가계의 총소득이 높고,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다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성림(2004)의 연구에서도 취업은 여성가장 가계의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 한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경제자원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한부모가계의 가족 특성도 가계의 경제자원에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과 자산은 가계의 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며(백은영, 2009), 가계의 생활주기는 가구주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백은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의 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소득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역U자형을 나타내며, 생활주기에 따라 저축의 목적과 종류도 달랐다. 순자산의 규모는 미혼기와 비교하여 자녀 초등학교기에 평균 3배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했고, 자녀 성년기에 순자산 규모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였다. 한부모가계도 한부모의 연령,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생활주기를 구분할 수 있고, 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경제자원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연구에 한부모가계의 생활주기 특성을 나타내는 한부모의 연령,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자녀의 연령 등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주기와 더불어 세대구성도 가계의 경제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배다영·진미정(2011)은 한부모 단독가구와 3세대 가구의 빈곤실태를 비교하였는데,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3세대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3세대 가구일 때 자기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부모 단독가구 보다 높아 주거의 안정성은 3세대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여성가구주 가계(곽민주·이희숙, 2003; 이성림, 2004)를 대상으로 하거나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한부모가계를 정의(고선강, 2014; 문은영, 2011)하여 3세대 한부모가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가계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연구에 3세대 가구를 포함하고 세대구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부모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의 특성이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부모가계의 생활주기와 세대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자산, 소득, 주거)은 차이가 있는가?
- 2)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자산, 소득,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이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계는 혼인상태가 미혼, 사별,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었고,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사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가구주가 한부모이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단독가구와 한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조부모 중 한명 이상과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도 포함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이 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및 구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자료이다. 통계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3001호)로 표본의 규모와 추출방식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의 2,075조사구에서 20,00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단위는 가구이며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업, 직업 등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미혼자녀와 배우자 등도 가구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000가구를 공통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고, 각각 10,000가구에 금융부분과 복지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통계청, 2014). 본 연구에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통부분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표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출되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를 선택하였다. 조사 데이터 파일에 한부모가구를 추출할 수 있는 변수가 제공되어 이를 활용하였다. 한부모가구는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이하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2014). 연구표본은 565 한부모가구이다.

조사표가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조사표에서 측정된 내용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구용 조사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경제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하였다. 단 가구용 조사표에서 한부모가 가구주가 아닌 사례(161가구)들을 찾아 가구주의 특성(예,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가구원용 조사의 한부모의 특성으로 교체하였다. 가구원용 조사표를 활용하여 3세대 가구 여부, 6세 이하 자녀 유무, 12세 이하 자녀 유무 등을 확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종속변수는 자산, 소득, 주거유형이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

적립식 펀드, 저축성보험, 예치식 저축, 예치식 펀드, 주식, 채권, 기타(선물, 옵션 등), 빌려준 돈, 갯돈불입금, 전월세보증금의 총합이다. 실물 자산은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거주주택, 비거주주택, 계약금, 중도금 등)과 자동차, 회원권 등의 기타 실물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은 가구소득으로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총합이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경상소득은 가계의 세금 납부 전 연간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세금 납부 후 연간소득으로 측정하였다. 회귀모형에는 경상소득이 사용되었다. 거주유형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 형태를 자기집, 전세, 월세, 기타(무상주택 등)로 구분하였다. 자산과 소득은 편포가 심하여 회귀모형은 로그를 취하여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한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고용상태는 상용직근로자, 임시직·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기타종사자(보험판매, 택배기사 등), 무직·가사일로 구분하였고, 각각을 가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한부모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구원수는 조사대상 가계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였다.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는 이혼, 사별, 미혼 또는 별거로 구분하고, 회귀모형에는 이혼은 1, 사별·미혼·별거는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세대 가구 여부는 한부모가 자신의 부모중 1명 이상과 함께 사는 경우를 3세대 가구로 정의하고 1로 코딩하였고,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한부모 단독가구로 정의하고 0

으로 코딩하였다. 12세 이하 자녀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로 나누어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남성 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보유율 및 보유액 비교 분석에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이 활용되었다.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산수준과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계의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이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 비교

본 연구는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경제자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연구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표본 중 남성한부모 가계가 193가구로 34.2%를 차지하였고, 여성한부모 가계는 372가구로 65.8%를 차지하였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2)는 2015년을 기준으로 남성한부모 가계가 전체 한부모가계의 약 23%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본 연구표본의 남성한부모 가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표본은 가구주가 한부모가

아닌 3세대 한부모가계를 포함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4.42세, 여성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1.99세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남성한부모는 40대가 5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20.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한부모는 40대가 62.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5%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8.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한부모는 40대에 집중되어 있고, 50대와 30대에도 고르게 분포된 반면, 여성한부모는 4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는 장래가구추계(2012)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교육수준도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2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이하의 비율은 남성한부모의 경우 17.1%, 여성한부모는 6.2%를 나타내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는 남성한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는 비율은 여성한부모가 19.6%, 남성한부모가 15.5%로 나타나 고학력의 비율은 여성한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계를 연구한 이연주·김승권(2011)의 연구에서도 남성한부모 보다 여성한부모의 고학력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고용상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용직의 비율은 남성한부모가 38.3%, 여성한부모가 29%였고, 임시직·일용직은 남성한부모가 25.9%, 여성한부모가 30.6%로 나타나 남성한부모가 여성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수		전체 (n=565)		남성한부모 가계 (n=193)		여성한부모 가계 (n=372)		$\chi^2$ (t)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성별	남성	193	34.2					
	여성	372	65.8					
연령	20대	16	2.8	4	2.1	12	3.2	17.36***
	30대	128	22.7	35	18.1	93	25.0	
	40대	348	61.6	114	59.1	234	62.9	
	50대 이상	73	12.9	40	20.7	33	8.9	
	세	(42.82)	(6.13)	(44.42)	(6.51)	(41.99)	(5.76)	
교육 수준	초등학교	15	2.7	11	5.7	4	1.1	17.35***
	중학교	41	7.3	22	11.4	19	5.1	
	고등학교	337	59.6	109	56.5	228	61.3	
	2년제 대학교	69	12.2	21	10.9	48	12.9	
	4년제 대학교	95	16.8	28	14.5	67	18.0	
	대학원 이상	8	1.4	2	1.0	6	1.6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182	32.2	74	38.3	108	29.0	25.64***
	임시직·일용직	164	29.0	50	25.9	114	30.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3	4.1	15	7.8	8	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1	12.6	28	14.5	43	11.6	
	무급가족종사원	3	.5	3	1.6	0	0	
	기타종사자	23	4.1	5	2.6	18	4.8	
	무직자. 가사. 학생	99	17.5	18	9.3	81	21.8	
가구원 수	명	(3.27)	(.99)	(3.52)	(1.09)	(3.13)	(.90)	(4.53)***
한부모가계 형성사유	미혼 또는 별거	6	1.4	0	0	6	1.6	9.77***
	사별	95	16.8	21	10.9	74	19.9	
	이혼	464	82.1	172	89.1	292	78.5	
3세대	한부모 단독 가구	404	71.5	98	50.8	306	82.3	61.81***
	3세대 가구	161	28.5	95	49.2	66	17.7	
6세 이하 자녀	없음	493	87.3	169	87.6	324	87.1	.25
	있음	72	12.7	24	12.4	48	12.9	
12세 이하 자녀	없음	315	55.8	113	58.5	202	54.3	.93
	있음	250	44.2	80	41.5	170	45.7	

\* $p < .1$  \*\* $p < .05$  \*\*\* $p < .01$

한부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비율도 남성한부모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가사·학생의 비율은 여성한부모가 21.8% 남성한부모는 9.3%로 여성한부모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평균 가구원수는 남성한부모 가계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3세대 가구의 구성비율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한부모는 49.2%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한부모는 17.7%만이 3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다영·진미정(2011)의 연구에서 남성한부모의 3세대 가구 구성비율이 여성한부모와 비교하여 높았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한부모 단독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남성한부모 가계의 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는 남성한부모의 89.1%가, 여성한부모의 78.5%가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부모가계의 돌봄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한부모 사유, 3세대 가구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수준의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다른 특성의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IV. 연구 결과

### 1.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비교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 소득, 주거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자산과 소득은 보유율과 보유수준을 주거유형은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2>는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 보유율, 소득 구성, 주거유형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자산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금융자산 중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 보험, 예치식 저축·펀드, 주식·채권이다. 이들 중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 보험, 예치식 저축·펀드의 보유율은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더 높고, 주식·채권 보유율은 남성한부모 가계에서 더 높다. 실물자산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거주주택, 자동차 보유율이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높았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47.2%, 자동차 보유율은 61.1%로 여성한부모 가계의 25.3%, 36.8%의 약 2배 정도의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분석한 고선강(2014)의 결과와 유사하다.

소득 원천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한부모 가계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보유율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거유형도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한부모 가계는 자가 비율이 높고, 여성한부모 가계는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높았다.

〈표 2〉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 보유율, 소득 구성, 주거유형 비교

		보유율(%)	전체 (n=565)	남성한부모 (n=193)	여성한부모 (n=372)	$\chi^2$
금융 자산	적립 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99.6%	100%	99.5%	1.04
		적립식 저축·펀드	30.6%	24.4%	33.9%	5.42***
		저축성 보험	71.7%	62.7%	76.3%	11.66***
	예치 식	예치식 저축·펀드	13.8%	10.4%	13.8%	2.92*
		주식·채권	6.4%	11.4%	3.8%	12.41***
		권리금(차량, 영업장 등)	5.1%	6.2%	4.6%	.70
(기타 저축 (빌려준 돈, 입차보증금, 불입한 갯돈 등))		12.9%	10.4%	14.2%	1.70	
실 물 자 산	부동 산	거주주택	32.7%	47.2%	25.3%	27.62***
		거주주택 외 부동산	18.8%	22.8%	16.7%	3.13*
	실물	자동차	45.1%	61.1%	36.8%	30.33***
소득		근로소득	72.7%	73.1%	72.6%	.02
		사업소득	25.5%	32.1%	22.0%	6.80***
		재산소득	13.5%	14.5%	12.9%	.28
		공적 이전소득	48.5%	48.7%	48.4%	.01
		사적 이전소득	18.1%	16.1%	19.1%	.78
주거유형		자가	32.7%	47.2%	25.3%	32.89***
		전세	23.7%	17.1%	27.2%	
		보증금 있는 월세	29.2%	20.2%	33.9%	
		보증금 없는 월세	4.6%	5.7%	4.0%	
		기타(무상주택 등)	9.7%	9.8%	9.7%	

\* $p < .1$  \*\* $p < .05$  \*\*\* $p < .01$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소득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금융자산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주식·채권으로 나타났고, 실물자산 중에는 부동산 전체, 자동차였다. 모두 남성한부모 가계의 평균 자산 수준이 높았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실물자산 전체와 총자산 수준도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높았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수준도 남성한부모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선강(2014)의 연구

에서 남성한부모 가계 보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순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총자산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와 고선강(2014)의 연구의 연구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인데 고선강(2014)의 연구대상은 함께 사는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한부모의 연령이 본 연구대상보다 높고, 가구주가 한부모인 경우만을 포함하여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이 높은 남성한부모

<표 3>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소득 수준 비교

보유액(만원)			남성한부모(n=193)		여성한부모(n=37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 자산 순 자산	금융 자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471.84	1107.049	236.08	414.30	2.857***
		적립식					
		적립식 저축/펀드	283.77	983.43	297.03	982.08	-.152
		저축성 보험	1281.14	2094.84	1292.54	1815.53	-.064
	예치식	예치식 저축/펀드	367.36	1409.50	570.99	2802.87	-.949
		주식/채권 등	606.14	3184.56	98.88	880.70	2.170**
		권리금(영업장, 자동차 등)	255.44	1296.83	125.54	776.90	1.278
		기타저축	391.17	2001.82	310.80	1457.63	.545
		현주거지전월세보증금	1503.99	4830.14	2064.47	4128.01	-1.442
			5160.84	8948.29	4996.33	6986.02	.223
실물 자산		부동산 전체	11534.97	21799.60	8512.42	18446.82	1.734*
		거주주택	6619.17	12165.31	4669.09	10737.83	1.955*
		거주주택 외 부동산	4834.46	18632.17	3778.82	12629.26	.796
		자동차	580.59	982.20	328.98	687.93	3.177***
		12654.34	22344.64	8987.10	18943.69	2.045**	
총자산			17806.18	27133.55	13983.43	23076.37	1.756*
순자산			13934.94	21139.65	10368.37	19139.24	1.963*
		근로소득	2164.96	2542.99	1295.04	1437.55	4.402***
		사업소득	983.76	1927.09	656.23	1767.94	1.97*
		재산소득	73.66	344.126	101.33	461.995	-.733
		공적 이전소득	210.12	460.92	265.88	495.75	-1.329
		사적 이전소득	56.01	235.251	251.56	842.306	-4.175***
		경상소득	3488.51	2627.47	2570.03	2059.37	4.229***
		가처분소득	2933.09	2190.33	2211.59	1805.64	3.935***
		균등화가처분소득	1752.55	1248.12	1366.89	1011.35	3.707***

\* $p < .1$  \*\* $p < .05$  \*\*\* $p < .01$

가계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소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으로 비교하였는데, 모두 남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상소득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약 73.7%였고,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표본의 가구소득 평균인 4676만원의 54.97%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남성한부모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적 이전소득은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와 <표 3>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한부모 가계가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더 나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실물자산 수준이 높았다.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 수준의 차

이는 근로소득의 차이가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사적 이전소득이 더 많은 것은 남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경제자원 확보에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거나 자녀 양육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이전소득의 비율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곽민주·이희숙, 2003; 이성립, 2004)를 지지하는 것이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높으나, 금융자산 보유율에서는 여성한부모 가계가 여러 항목에서 높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 보험과 같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성한부모 가계가 더 활발하고 하고 있었고, 예치식 저축·펀드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여성한부모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자원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고 일정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자산 형성과 저축 행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양부모가계보다 한부모가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남성이 단기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저축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장기간을 계획하는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Fisher, 2010), 배우자가 있는 가계의 투자 결정은 배우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Lyons, Neelakantan, & Scherpf, 2008). 양부모가계의 경우 저축과 투자 결정에서 양쪽 배우자의 의견에 절충될 수 있으나 한부모가계는 배우자의 완충역할이 없으므로 부모의 성별에 따른 경제자원 관리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 2. 한부모가계의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계의 자산수준, 소득수준,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산수준, 소득수준, 주거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자산수준과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였고, 이산형 변수인 주거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 중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회귀모형에서 VIF값이 2.5 이상이 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한부모가계의 자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부모가계의 자산수준 영향 요인 분석은 먼저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4>)를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주요 항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표 5>, <표 6>)를 제시하였다.

<표 4>는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한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3세대 가구 여부, 12세 이하 자녀 유무,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3개의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각 모형의 설명력은 30.7%, 22.1%, 31.1%로 나타났다. 총자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고용상태, 가구원수, 3세대 가구 여부,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고용상태, 3세대 가구 여부, 가구 소득이었고, 실물자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가구소득이었다.

한부모의 성별은 총자산 수준의 결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앞서서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산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표 3> 참조)에서 총자산과 실물자산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보유 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의 보유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함께 투입된 다른 요인들을 일정하다고 했을 때, 성별은 총자산을 결정하는데 의미있는 영향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총자산을 단순 비교하면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산수준이 더 높지만, 그 자산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부모의 성별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세대구성, 12세 미만 자녀 유무, 가구소득이 같다면, 한부모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자산수준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부모가계의 총자산 수준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상태가 상용직인 한부모와 비교하여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한부모 또는 무직이나 가사일을 하는 한부모의 총자산 수준이 더 낮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자산 수준이 높게 결정된다. 한부모가계의 총자산 수준은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가구소득을 가지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성별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수준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었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남성한부모 가계가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더 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실물자산의 경우 남성한부모 가계가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더 높은 실물자산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수준의 단순비교와는 의미가 다르며,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조건이 같다면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소득 등이 같다면 여성한부모 가계가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가질 것이고, 더 적은 실물자산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 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경향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은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을 본 연구의 결과도 일정 부분 지지하지만, 그에 더하여 소득과 일자리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성별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단순비교 이면의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여,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용상태는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직·일용직, 무직·가사일에 종사하는 한부모의 금융자산 수준이 더 낮았다. 3세대 가구인 경우 한부모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금융자산 수준이 낮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수준도 높았다. 실물자산 수준에도 한부모의 고용상태가 영향을 미쳤는데, 임시직·일용직인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수준이 낮았으며 자영업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수준이 높음을 알 수



〈표 4〉 한부모가계의 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sup>1)</sup>		총자산(로그) (n=565)			금융자산(로그) (n=565)			실물자산(로그) (n=565)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남성	-.140	.151	-.038	-.548 ***	.149	-.159	1.078 ***	.366	.120
	연령	.011	.013	.040	.004	.012	.015	.019	.030	.02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중퇴/졸업	-.043	.230	-.012	-.143	.227	-.043	.456	.557	.053
	대학교 중퇴 이상	.379	.247	.100	.173	.244	.049	1.399 **	.598	.151
고용 상태	임시직·일용직	-.605 ***	.168	-.157	-.574 ***	.166	-.160	-.700 *	.407	-.075
	자영업	.118	.190	.025	.109	.187	.025	1.163 **	.459	.102
	기타	-.301	.312	-.036	-.433	.308	-.056	.048	.755	.002
	무직/가사노동/학생	-.423 ***	.202	-.092	-.459 **	.199	-.107	-.436	.489	-.039
	가구원수	.141 *	.082	.080	.027	.081	.016	.444 **	.199	.103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이혼	-.323 *	.168	-.071	-.241	.165	-.057	-.552	.406	-.050
	3세대 가구	.367 *	.188	.095	-.425 **	.185	-.118	.954 **	.455	.101
	12세 이하 자녀 있음	-.046	.146	-.013	.063	.144	.019	-.288	.353	-.034
	가구소득(로그)	.852 ****	.088	.398	.696 ***	.087	.349	1.802 ***	.213	.346
	상수	1.416	.922		2.746	.909		-11.38 ***	2.231	
	F	18.770***			12.055***			19.156***		
	R2	.307			.221			.311		
	수정된 R <sup>2</sup>	.291			.203			.295		

\*\* $p < 0.05$  \*\*\* $p < 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여성,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용상태: 상용직,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사별, 미혼 등

있다. 또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보다 대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의 실물자산 수준이 높았고, 가구원 수가 많고, 3세대 가구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실물자산 수준도 높았다.

금융자산의 세부 항목 중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보유액과 실물자산의 세부항목 중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금융자산의 세부항목 보유액 결정에 성별, 연령, 고용상태, 가구원수, 3세대 가구 여부,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세부 항목 중 성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적립식 저축·펀드 보유액과 주식·채권 보유액이었다. 적립식 저축·펀드는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 보다 보유 액수가 낮았고, 주식·채권은 남성한부모의 보유 액수가 더 많았다. 고용상태는 적립식 저축·펀드, 저축성보험, 주식·채권 보유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공통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가진 한부모가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한부모에 비하여 적은 액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자영업을 하는 한부모가 상용직에 근무하는 한부모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저축성보험 액수를 보유하고, 무직·가사노동·학생과 비교하여 상용직을 가진 한부모의 적립식 저축 또는 펀드의 액수가 많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3개 금융자산 모두 높은 액수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적립식 저축·펀드와 저축성보험의 액수가 많았다. 3세대 가구 여부와 교육수준은 각각 적립식 저축·펀드의 액수와 저축성 보험의 액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3세대 가구인 경우 한부모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낮은 적립식 저축액을 가지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성 보험의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세부항목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앞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한부모의 성별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금융자산의 세부항목 보유액에도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특히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가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성향을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구소득, 고용상태, 가구 특성 등 자산수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상황에도 성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저축성향, 자산형성, 투자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가계재무관리에서 위험수용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선행연구(Yao, & Hanna, 2005)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계는 가계의 경제자원 관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관리 성향의 차이를 절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자원관리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의 세부항목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3세대 가구 여부,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 실물자산 보유액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액 각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와 비교하여 부동산 보유액과 자동차 보유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액은 많았으나, 자동차 보유액은 적어졌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와 비교하여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의 부동산 보유액이 높을 것이며, 고용상태가 상용직인 한부모와 비교하여 자영업을 하는 한부모의 부동산 보유액이 높았다. 자동차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직·일용직에 있거나 무직 또는 가사일을 전담하는 한부모의 자동차 보유액은 낮고, 자영업을 하는 한부모의 자동차 보유액은 높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나 미혼인 경우, 3세대 가구인 경우에 부동산 보유액이 많았다. 가구소득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보유액, 자동차 보유액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서 논의한 실물자산에 대한 이변량분석(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실물자산 평균값 비교)에서 남성한부모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을 상기해 보면, 그러한 차이의 일정 부분을 한부모의 성별 차이가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부동산 보유액과 자동차 보유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가구소득이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가 있다면 이들 중 남성한부모 가계의 부동산 수준과 자동차 보유액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액은 한부모가계의 주거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유사한 소득수준과 고용상태 가구특성을 갖는 한부모가계의 경우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한부모가계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부모가계의 가구소득과 가구소득 원천에 따라 나누어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각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4개의 회귀모형을 만들었고, 각각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구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R^2=.254$ , 근로소득 모형의 설명력은  $R^2=.669$  공적 이전소득 모형의 설명력은  $R^2=.215$ , 사적 이전소득 모형의 설명력은  $R^2=.084$ 이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근로소득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였고, 사전 이전소득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원수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에는 고용상태, 가구원수, 12세 이하 자녀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들이었다. 공적 이전소득 결정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3세대 가구 여부, 사적 이전소득 결정에는 성별, 고용상태,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12세 이하 자녀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4개의 회귀모형에서 한부모의 성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여성한부모 가계의 가구소득은 낮고,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액수는 높을 것이다. 전체 가구소득은 남성한부모 일 때 더 높고, 이전소득은 여성한부모 가계가 더 높기 때문에 여성한부모 가계가 이전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보다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 가계의 가구소득이 더 높으며, 고용상태가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직·일용직, 무직·가사일을 하는 한부모 가계의 가구소득이 더 낮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은 높았다. 한부모 가계의 근로소득은 상용직과 비교하여 다른 고용상태인 경우 낮았다. 자영업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임시직·일용직, 기타(학습지 교사, 택배 등)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낮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낮았다. 종합하면 근로소득 수준은 한부모가 하고 있는 일과 가장 관련이 깊었고, 한부모에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돌봄 문제가 근로소득 창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전소득을 살펴보면, 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한부모가계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부모가계보다 더 높은 공적 이전소득을 가지며, 다른 고용상태와 비교하여 무직이나 가사일을 하는 경우,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가 사별이나 미혼인 경우, 3세대 가구인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 수준은 고용상태가 상용직과 비교하여 무직이나 가사일을 하는 경우, 이혼한 한부모인 경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았다.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한부모가 무직이나 가사일을 하는 경우 상용직 한부모와 비교하여 많은 공적 이전소득을 갖게 된다. 한부모 단독가구가 아니라 3세대 가구인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높은 이유는 조부모의 노령연금 수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많은 것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거나, 어린 자녀가 있어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공적 이전소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경우 자녀의 조부모 또는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6〉 한부모가계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sup>1)</sup>	가구소득(로그) (n=565)			근로소득(로그) (n=565)			공적이전소득(로그) (n=565)			사적이전소득(로그) (n=565)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164**	.073	.095	.124	.199	.017	-.801***	.269	-.129	-.404*	.241	-.078
연령	-.001	.006	-.010	-.003	.017	-.005	.044**	.022	.092	.031	.020	.077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졸업	.342***	.110	.205	.086	.302	.013	.407	-.052	.476	.366	.095
	대학교 중퇴 이상	.410***	.118	.230	.104	.323	.014	.437	-.126	.568	.392	.107
고용상태	임시직·일용직	-.420***	.079	-.233	-.625***	.217	-.084	.293	.067	.352	.263	.065
	자영업	.037	.092	.017	-.659***	.251	-.731	.339	-.023	.309	.304	.047
	기타	.030	.151	.008	-.695***	.413	-.434	.557	-.015	.024	.500	.002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무직/가사노동/학생	-.713***	.093	-.331	-.4504***	.254	-.510	.343	.169	1.586***	.308	.246
	가구원수	.198***	.039	.239	.414***	.106	.122	.144	.027	-.020	.129	-.008
3세대 가구	이혼	.076	.081	.036	.067	.222	.008	.299	-.095	.820***	.269	.128
	사별	.035	.091	.020	-.042	.249	-.006	.336	.404	.223	.301	.041
12세 이하 자녀 있음	상용직	-.027	.071	-.016	-.409***	.193	-.060	.261	.064	.541**	.234	.110
	미혼 등	6.913***	.335		6.536***	.916		1.237		-1.861***	1.111	
F	15.661***			92.944***			12.613***			4.227***		
R <sup>2</sup>	.254			.669			.215			.084		
수정된 R <sup>2</sup>	.238			.662			.198			.064		

\*\*  $p < 0.05$  \*\*\*  $p < 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여성,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용상태: 상용직,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사별, 미혼 등

### 3) 한부모가계의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유형은 가계의 자산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부모가계의 주거유형을 자기집, 전세, 월세 등(무료로 제공되는 주거 포함)으로 구분하여 주거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준거 집단은 전세이다. 한부모가계의 주거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고용 상태, 가구원수,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3세대 가구 여부, 가구소득이었다. 앞서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주거유형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성한부모가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한부모가 전세와 월세에 사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다변량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만들어 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계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세가 아닌 자기집에서 살 확률이 더 높았다. 한부모 단독가구 보다 3세대 가구인 경우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비율이 높다는 배다영·진미정(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약 50%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였고, 여성한부모 가계의 약 18%만이 3세대 가구임을 고려하면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기집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다(<표 1> 참조).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기집 비율이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높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부모의 성차로 보이지만 남성한부모 가계가 3세대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이 높고, 3세대 가구가 한부모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월세는 자기집이나 전세와 비교하여 불안정한 주거유형이고, 자기집이나 전세에 필요한 목돈이 부족할 때 선택하는 유형이다. 전세로 살고 있는 한부모와 비교하여 월세로 사는 경향성을 높이는

변수는 고용상태,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가구소득이었다. 상용직 일자리를 가진 한부모와 비교하여 자영업, 기타(학습지 교사, 택배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한부모들이 전세 보다는 월세에 살 확률이 높았다. 특히 기타 직종 종사자들은 상용직에 종사하는 한부모들보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 확률이 약 3.8배 더 높아, 직종에 따른 주거유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혼으로 한부모가계를 형성한 경우 사별이나 미혼의 한부모보다 전세 보다는 월세에 살 경향성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월세에 살 확률이 높았다. 한부모의 고용상태가 기타 유형으로 불안정한 경우,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유형도 불안정한 월세를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을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경제자원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각각의 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과 소득의 보유율과 보유수준에서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한부모의 성별은 특정항목의 경제자원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남성한부모 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세부항목들과 여성한부모 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세부항목들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여성한부모 가계는 적립식 저축이나 펀드, 저축성 보험, 예치식 저축이나 펀드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남성한부모 가계는 주식·채권, 주택, 자동차의 보유율이 높았고, 전월세가 아닌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산과 소득의 보유수준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총자산과 가구소득 모두 여성한부모

(표 7) 한부모가계의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65)

변수 <sup>1)</sup>		자가			월세 등		
		B	SE	Exp(B)	B	SE	Exp(B)
성별	남성	.486	.297	1.626	.207	.286	1.230
	연령	.022	.026	1.022	-.004	.022	.996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졸업	-.198	.468	.820	-.114	.413	.892
	대학교 중퇴 이상	-.190	.500	.827	-.444	.445	.641
고용상태	임시직·일용직	.061	.334	1.062	.416	.289	1.516
	자영업	.702	.371	2.018	.644 *	.363	1.905
	기타	.977	.721	2.655	1.344 **	.678	3.833
	무직/가사노동/학생	-.131	.394	.877	.154	.339	1.167
가구원수		.420 **	.169	1.522	.152	.157	1.164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이혼	.192	.312	1.212	.675 **	.286	1.964
	3세대 가구	.819 **	.367	2.269	-.276	.362	.759
	12세 이하 자녀 있음	.215	.291	1.240	.265	.256	1.304
	가구소득(로그)	.616 **	.215	1.851	-.368 **	.178	.692
	상수	-7.542 ***	2.098		2.330 ***	1.729	
-2 Log Likelihood		1055.221					
$\chi^2$		152.616***					
Pseudo-R <sup>2</sup> (Nagelkerke)		.268					

\*\* p< 0.05 \*\*\*p< 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여성,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용상태: 상용직, 한부모가계 형성 사유: 사별, 미혼 등

가계보다 높았다. 남성한부모 가계가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아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주택과 자동차 보유율이 높는데 이러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성한부모 가계의 총자산 수준이 높으며, 자기집에 살고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주거안정의 측면에서도 남성한부모 가계가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의 원천을 비교한 결과 남성한부모 가계의 평균 근로소득액이 여성한부모 가계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난 것은 소득의 측면에서도 남성한부모 가계가 보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한부모 가계의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제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한부모는 금융자산 중 주식·채권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한부모는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상황에도 유효하였다.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보다

위험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성향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산증식 기회가 더 많은 것과 동시에 투자위험도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한부모 가계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생활주기를 고려한 안정적 자산형성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경제자원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한부모 가계는 상대적으로 자산증식과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확보를 위한 경제자원관리 전략이 강조되어야 한다.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시장 환경과 취업환경의 악화는 개별 한부모가계가 스스로 적절한 경제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한부모가계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은 한정적이지만 경제교육의 이름으로 경제자원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쉽지만, 일반적인 가계경제에 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부모들은 기본적인 경제자원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계재무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한부모의 성별 특성에 맞는 가계경제자원 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 상용직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일자리에 따라 가구소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산과 주거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특성, 소득을 통제된 후에도 한부모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는 한부모와 비교하여 총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유액이 낮았으며, 기타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전세보다는 월세에 살 확률이 높았다. 상용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한부모의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고, 낮은 근로소득은 낮은 가구소득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할 여력이 적고, 목돈이 필요한 자기집이나 전세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은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한부모가계의 근로소득 수준 결정에 12세 이하의 자녀 유무가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선행연구에서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구원수와 12세 이하의 자녀 유무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부모가계의 자녀양육 문제가 한부모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부모가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해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여성한부모의 학력이 남성한부모 보다 높으나, 상용직에 고용된 비율은 남성한부모 보다 낮고, 임시직과 무직의 비율은 더 높다. 여성한부모의 경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과 자녀양육이 상충될 때, 양육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어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소득 창출을 위해서 여성한부모의 취업지원은 물론 자녀양육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한부모 가계는 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구성을 통해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남성한부모 가계도 자녀양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혼으로 한부모가계가 된 경우 부동산 보유수준이 낮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사적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혼한 한부모 가계는 사별한 한부모가계와 비교하여 전세보다는 월세에 살 확률이 높고, 전체 가계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과거와



비교하여 사별보다는 이혼으로 한부모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한부모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하여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2차 조사 자료들에 한부모가계를 연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된 것은 한부모가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조사자료의 제한으로 활발한 연구가 어려웠던 한부모가계 특히 남성한부모 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한부모가계의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에게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 연구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을 다루지 못하고 자녀양육 관련 변인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분석한 것은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한계인 동시에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의 유형과 수준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도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독립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부모의 경제자원관리의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방식 등의 정서적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관리에 관한 후속연구들이 자녀양육에 관한 변인들의 관련성 분석을 포함한다면 한부모가계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적절한 경제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정·박수선(2013).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39-62.
- 2)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3) 광민주·이희숙(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1), 55-71.
- 4) 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87, 50-59.
- 5) 김진욱(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101-125.
- 6) 노정자·강기정(2012).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45-163.
- 7)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8) 박정윤·원아름(2014).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21-141.
- 9) 배다영·진미정(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20.
- 10)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 11) 서지원(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의

-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03-124.
- 12) 손서희(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59-75.
  - 13) 손진분 · 박미려(2007).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45-65.
  - 14)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15) 이연주·김승권(2011).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 17-43.
  - 16) 이윤금 · 양세정(1999).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소비자학연구, 10(4), 93-108.
  - 17) 조희금 · 김경신 · 정민자 · 송혜림 · 이승미 · 성미애 · 이현아(2010).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 18) 진미정 · 김은정(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19)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대전:통계청.
  - 20) 통계청(2012). 2010~2035 장래가구추계. 대전:통계청.
  - 21) 통계청(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전:통계청.
  - 22) Fisher, P.(2010).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saving behavior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1), 14-24.
  - 23) Han, W., Huang, C., & Garfinkel, I.(2003). The importance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income on family's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hildren's college attendance: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Journal of Family Issues, 24(6), 753-786.
  - 24)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8). Windows on divorce: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25) Lyons, A., Neelakantan, U., & Scherpf, E. (2008). Gender and marital differences in wealth and investment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 Finance, 6(4), 57-76.
  - 26) Ozawa, M., & Lee, Y.(2006). The net worth of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to other types of households. Family Relations, 55, 132-145.
  - 27) Yao, R., & Hanna, S. D.(2005). The effect of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financial risk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 Finance, 4(1), 66-85.

- 투 고 일 : 2015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22일